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2월 5일(주일) 제1428호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실천.

2023 Acts29 비전 컨퍼런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교제와 격려, 회복을 위한 '2023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1월 29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미주, 일본, 중국, 본부 권역(오�클랜드, 시드니, 베트남, 아부다비, 홍콩) 담당 목회자, 비전교회 협력위원, CGNTV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정영환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 목사 비전의 말씀, 이광순 장로 격려사, 권역별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 목사는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하고 필요하다"면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대의 옳지 못한 것들을 분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온누리비전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순 장로(해외비전교회협의회 위원장)는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목회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고, 김형철 목사(삼온누리교회)는 "온누리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더 열심히, 감사하게 이민 목회를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CGNTV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읽기 콘텐츠 <고고 바이블>을 선보인다. '고고 바이블'은 성경 통독을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다. 어린이들이 하루 20분씩 기독교 OTT 콘텐츠 '고고 바이블'을 시청하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제작했다.

2월 1일부터 기독교 OTT '풍당'에 365일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캐릭터 '비블로'가 성경 말씀을 소개해주고, AI 성우가 말씀을 읽어준다. '비블로'는 '책들'이라는 뜻의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유래된 말로, 영어의 바이블, 불어의 비블을 합친 단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 동안 작은 실천 운동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 주제로 묵상 및 실천

온누리교회가 올해도 사순절에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 2월 2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9일(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조를 묵상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운동이다. 사순절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주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교회 실천과 개인실천 사항을 지킨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교회 실천사항은 '전기 소등',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이면지 활용', '잔반 남기지 않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 참여', '현혈하기' 등이다. 개인 실천사항은 '보일러 온도 낮추기', '세탁물 가득 채워 돌리기', '천연 발효액 세제 사용하기' 등이다.

정운오 장로(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신앙의 문제"라며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는 교회와 크리스천이 되자"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2023 목회사관학교 ... 전임 168명, 파트 137명 참석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2023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굳게 다짐했다. 2023 목회사관학교가 지난 1월 30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443번지)에서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를 주제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05명(전임 168명, 파트 137명)이 참석해 목회자 자신과 가정, 공동체와 성도를 돌보며 상담하는 지혜와 노하우를 배우고 익혔다.

2023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개회강의, 하용조 목사 추모다큐 시청, 주제별(목회자의 가정 돌봄, 인생주기에 따른 돌봄, 어려운 성도 돌봄, 공동체 돌봄 노하우, 공동체 갈등 해결, 영적 돌봄 노하우) 사례 발표 및 나눔, 교회와 목회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주제별 사례 발표에서는 조호영, 최성민, 이기훈, 강미향, 노희태, 윤길중, 오은규, 전병천, 이기원, 노치형, 강부호 목사가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자의 자기 돌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잘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온전해야 한다"면서 "온누리교회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의 병기로 잘 쓰임 받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윤식 목사(서초D공동체)는 "여러 목사님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

회에 주신 생명력과 소망을 재발견했다"고 했고, 송예찬 전도사(여호수아청년부)는 "선배 목사님들과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목회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늘 성도들과 함께 있어 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절대적 도덕률이 있는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도덕률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도덕법칙’이라고도 한다. 시대에 따라 도덕률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대부분

다신론이나 범신론 종교를 가지거나 무신론자들이다. 절대적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률을 생각하기 힘들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부정할 수 없고, 시대를 초월한 도덕률을 모든 인간이 알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을 중력의 법칙이나 우전의 법칙 같은 자연법칙(laws of nature)과 구별되는 ‘자연법(Law of Nature)’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다급한 소리를 들었을 때 “가서 그를 위험에서 구하라”는 내면의 소리와 “도우러 가면 위험하거나 귀찮아질 수 있으니 피하라”는 다른 본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충동적 본능 외에 “도망치려는 충

동을 버리고 가서 도우라”고 하는 제3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도덕률 혹은 양심이라고 말한다.

캘빈 린턴은 인류에게는 공동의 도덕적 유산이 있으며 시대적, 지정학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도덕성과 행동규범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후반부의 6개 계명이다. 불효,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탐욕 등은 모든 문화권에서 금지하는 도덕률에 해당

한 것도 충동의 힘이 도덕률의 저지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의 무제한적 욕구를 향한 충동은 도덕적 규제나 법적 처벌 없이 제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윤리와 법의 절대적 기준이 없을 때는 충동과 힘이 윤리의 근원이 된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상황 윤리를 제시했다. 절대자로부터의 절대적 기준 없

의 기준으로 주장하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자의 행동은 비록 불법적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정당하다(politically correct, PC) 주장한다. 즉, 노동자나 약자의 권익을 위한 것은 절대적 선이라는 주장이다.

성경에도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동원한 소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상황마다 독창적이며 적절한 대답을 하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공존한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율법의 공의로 그 행위는 정죄되되 그 죄를 저지른 여인은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간음은 죄이며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명제적 진리로 인정받았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에게 행한 예수님의 인격적 행동과 말씀의 선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명제적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절대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으로 드러나는 인격적 진리의 절대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으로 드러나는 인격적 진리의 절대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나 삶으로 드러내신 도덕률은 누구에게 제시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절대적인 도덕률이다.

만일 절대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할 것이 분명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있을 수 없다. 결국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충동을 다른 충동보다 선호할 어떤 기반도 없다. 오직 어떤 충동이 얼마나 더 크지만 차이가 날 뿐이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

이는 그 충동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택이 없느니라”하시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하셨다.

공산주의자 레닌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의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는 “자본가나 제국주의자에게 선택한 것은 노동자나 식민지 사람에게 악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며 기독교의 절대적 도덕률을 부인했다. 반면 네오막시즘에 기반을 둔 포스트모던주의자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인권

특별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상준 장로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성도님들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 종종 “세상일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나 열심히 하세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과 거리가 있

는 사족(蛇足)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거창해 보이고,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다뤄야 할 내용처럼 어려워 보여서 믿음 생활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차별금지법, 성혁명, 진화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담론화하지 않던 정치, 사회, 과학 분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간에 시각차가 있어서 논의하기 꺼려지는 주제도 있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영적인 이야기와 거리가 있는 세상일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거북함을 가진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세계관이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입견, 안목, 경향 등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동안 학습과 경험으로 형성된 삶과 행동을 성경 기준으로 재조정하게 한다.

세계관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구원과 신앙을 나의 영적 영역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인간과 만물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고전 15:28). 나 자신의 구원과 행복이 목적인 신앙에 멈춰 있다면 그 신앙은 자기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혹

독한 대가를 그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를 수 없다.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지기를 기도하고(마 6:33), 더 나아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는 성경적 기준이자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이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의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하며,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고 외치며, 상대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사상과 신학의 공격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이념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지 그 심각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별하게

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법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는 인륜, 가정, 교회 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불완전한 인권만을 절대화한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을 초기에 제정한 서구 사회에서도 점점 늘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성경에 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애와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일하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 인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한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박신웅 목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18~19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할 것이고, 흠어지게 할 것이며,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힘차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18절).

‘지나간 일들’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리쇼노트’입니다. 구약성경에 5번 정도 등장하는 ‘리쇼노트’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상처와 아픔을 더는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실패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새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리쇼노트’라는 단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지난날의 실패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흥해 사건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가장 위대하고, 기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고,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던 흥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리쇼노트’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과거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의 순간들을 더는 기억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고백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고 과거에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은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19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역사와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 물이 갈라지고, 바닷속을 통과했던 것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적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 강이 생겨날 것이고, 광야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를 모두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펼쳐 나가실 위대한 내일의 꿈과 소망은 과거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물러들고, 도시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태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터치할 때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회복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

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아멘”으로 붙들 때 그 아름다운 계획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사 55:9).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생각이 크고 위대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크고 높은 뜻으로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라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영웅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삭이 기다렸고, 야곱이 기다렸고, 요셉이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고, 베드로가 기다렸고, 바울이 기다렸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려 일어나신다.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사 30:18).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에서는 늦은 게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다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향한 기다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축복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사야의 회복 메시지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구원과 회복의 약속 시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70이레가 지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심판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이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된 70이레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회복과 성벽 재건, 위대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일어나는 기적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시간을 기도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실 때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깨어짐이 아픔담고 위대한 결실품으로 다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연 많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방법 3

공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부모-자녀 관계에 공감이 미치는 영향



민성원 박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전문 자문위원, 미국
공인 심리상담전문가
(NCC))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독일의 미학자 피셔(Visher)가 ‘Einfühlung’이라는 단어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Einfühlung’은 ein(안에)와 fulen(느낀다)의 결합으로 ‘들어가서 느낀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공감의 개념이 여러 영역에서 발전했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심리학에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내적인 생각, 느낌, 욕구, 소원, 의미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감적 태도, 상대방에 대

한 이해 및 인식, 그리고 표현하는 공감 반응으로 나뉜다. 공감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관계에서는 관심과 이해도, 친밀감이 높아져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 최근 의사소통의 촉진제로 공감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공감의 역할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큰 영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외적 문제 행동의 수준이 경감되고, 분노나 두려움, 공격성에 대한 조절수준은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또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자기존중감, 심리적 안정감, 또래 관계 및 회복 탄력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에도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애정과 갈등이 공존하는 시기라 부모와 대립이 고조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기 어렵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공감적 표현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가능해도 청소년 자녀에게는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공감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공감이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자녀를 향한 공감적 반응이 왜 더 어려울까?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상 부모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제공하는 것도 그 원인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일반적 관계보다 더욱 밀착된 관계이기에 심리적 분리가 어려워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조망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녀의 관점 자체가 불안하고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욕구가 높다. 부모의 욕구와 기대를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의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공감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쉽지 않다. 셋째, 부모의 자기애성향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성은 이상적인 부모와 동일시하거나 과대한 자기 특성을 지닌 성격을 형성한다. 자기심리학 창시자인 코헷(Heinz Kohut)은 “양육과정에서 건강한 자기에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좌절감에 따른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성은 자녀가 좌절감이나 실패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슈퍼맘이 된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아이의 좌절된 상태를 돌아볼 틈이 없게 한다. 넷째, 일종의 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이나 부정적 인식이 자녀의 정서나 상태에 대한 지각 및 이해를 제한한다. 부모 또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반사적인 반응으로 자녀를 대할 때, 특히 민감한 발달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유형에 속하거나 원부로부터 공감의 양육을 받지 못했으니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까? 그렇지 않다. 공감은 정서적 자양분이다. 물리적 환경에서 산소가 없으면 호흡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끼니를 걸렀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거른다는 사람은 없다. 공감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자녀를 공감하는 게 어색하면 스스로 자신을 향해 해 보는 연습부터 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를 위해 공감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히 4:15, 롬 5:8).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다(롬 12:15, 벧전 5:4). 한 발자국씩 시도해서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만들자.



39. 주님이 부르시면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3일
본문(삼상 7:6~10)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것을 부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_해 주십시오.”(삼상 7:8).

2.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또 기도가 필요한 내 주위 어려운 친구, 이웃, 가족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들 이야기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해요. 40일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했어요. 사진과 소감으로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아요.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이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과 사례들, 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저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이 확신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제 믿음이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세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 박지혜 학생(파워웨이브)

“기도를 더욱 신중하게 했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찬양은 마음을 다해 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 제래미 어린이(꿈이자라는땅)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성경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콜스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최근 새로 임명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위원장이 과거 논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2018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가 법적 혼인 관계 중심의 정상 가족(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루는 것) 이 데올로기 등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불평등한 가족 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 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출산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낙태권 확대와 부모-친자로 구성된 가족을 깨뜨리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하나님의 질서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세 가지 기초

작년 미국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도스’ 판결로 뒤집혔다. 이로 인해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에 부여되었다. 하지만 도스 판결 이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법을 도입하려고 했던 캔자스 주의 주민투표가 부결되었고, 미시간 주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으로 낙태권을 옹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몬태나 주에서는 낙태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아기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보다 개인 선택의 자유가 더 소중하며, ‘낙태는 강간, 근친상간,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쁘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사고가 대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팀 패직(신학자, 작가)과 존 스톤스트리트(콜슨기독교세계관센터 회장)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기초(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시 11:3)는 말씀을 인용



“영적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세상의 해결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을
존중하고 기리는 데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세 가지 기초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고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잃어버리면 존재의 기반으로 자율성과 자아표현과 같은 막연한 생각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알파한 자아라는 개념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자율성과 자아표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희생되어야 한다.

둘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금 시대와 같이 상대주의에 사로잡힌 문화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생명존중)”라고 말하면서도 때에 따라 낙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이 팽배하고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아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은 혼인 상태의 엄마와 아빠가 있는 환경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가정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면 더 많은 태아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낙태가 ‘자율성’이나 ‘선택’의 문제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미혼 상태의 여성들이(아이를 원하지 않

는 남성들 때문에)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낙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재생산권’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재생산권을 주장하는 사고는 자녀를 일종의 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했지, 성인의 권리라고 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출생과 같이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허락하실 때 왔다.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 아닌 것을 찾고, 정상 가족을 신화나 이데올로기라 격하시키면서 보조 생식기술을 써서 아이를 만들고, 가족과 부모의 의미를 재정의하면, 의도적으로 한 아이에게서 생물학적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양친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 성인들이 자녀를 권리로 취급할 때마다 아이들이 양친에 대해 갖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침해된다.

1973년 제정된 미국 통일양육법에서 부모의 정의는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한 자녀의 생물학적 친부모”였다. 하지만 2002년 보조 생식기술이 많이 사용되면서 (생물학적 친부모는 아니지만) 정자 기증, 난자 기증,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사람들도 부모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로 동성혼이 인정되자 비혼 상태의 동성파트너까지

입양 절차 없이 한 아이의 부모로 인정되었다.

케이티 파우스트(아동인권 운동가, 작가)는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를 선택적인 것으로 만들면 부모 됨에 있어 엄마와 아빠도 선택적인 것이 된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아빠, 엄마, 자녀는 ‘자명한 삼각형’

GK 체스터턴은 가족을 아빠, 엄마, 자녀의 삼면이 있는 ‘자명한 삼각형’으로 지칭하며, 아이를 낳기 위해 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고, 문명이 지속하려면 아이는 새로 태어나야 하고, 가족이라는 자명한 삼각형은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진리를 무시하는 문명이 무너질 거라고 했다. 그는 1920년대에 이미 정상 가족을 벗어난 형태의 가족이 가족의 대안으로 제안될 것을 예견하면서 현실 때문에 가족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즉,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는 남편이 필요하고, 아빠는 아내가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너무나 완고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정의의 바꿀 수 있는 척하면서 가족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마치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막겠다고 우산을 들고, 물뿌리개 호스로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기초와 거대한 세속 문화의 물결을 뒤집고,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티 파우스트가 최근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나라가 걱정되시나요? 집을 사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잘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세요. 공직에 출마할 필요도 없고, 팟캐스트를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씽크탱크를 이끌 필요도 없어요. 가장 강력하고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일은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 5-6절.”

그녀가 말미에 예로 든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렘 29:5-6).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장했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진정한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을 존중하고 기리는 데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삼시 세끼 밥 먹듯 일상적이고, 꾸준하게

남상옥 장로의 시나브로 기부와 이웃사랑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유사어로 ‘살금살금’, ‘은밀하게’ 등이 있다. 남상옥 장로(강촌공동체, (주)엘브리지아브노바 대표이사)의 기부와 이웃사랑이 ‘시나브로’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린다.

남상옥 장로에게 기부와 이웃사랑은 삼시 세끼 밥 먹듯 일상적이다. 또 꾸준하다. 10년 넘게 예손(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아트 스튜디오) 달력을 구매하고, 20년 넘게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이어오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하던 기부와 봉사가 어느새 일상이 된 남상옥 장로의 시나브로 기부와 이웃사랑 이야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상적이고 꾸준하게 기부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남상옥 장로. 오른쪽 사진은 남상옥 장로가 2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 우간다 의료 봉사.



남상옥 장로는 대학교 1학년 때 CCC(한국대 학생선교회)에 소속된 같은 대학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8년 11월 4일이었다.

“대학교 1학년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영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길래 ‘못 들어봤다’고 했더니 사영리로 복음을 전하더군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가 기숙사를 찾아와 교회 가자고 했다. 그렇게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갔다. 처음 간 교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제 옆에 앉은 분이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김준곤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에게 당시 만 원은 굉장한 큰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큰돈을 아낌없이 낼 수 있을까’ 놀랐고, ‘나도 저분처럼 헌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백 원, 이백 원 헌금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남상옥 장로는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헌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남상옥 장로의 신앙은 기복(起伏)의 부침이 없었다. 교회에서 맡은 일에 묵묵히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평온하던 그의 신앙생활에 일대 전환기가 있었다. 1998년, 남상옥 장로가 교회를 다닌 지 꼬박 20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공사대금 관련 비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건축업자들에게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아시

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될 일을 왜 업자들에게 삶은 소리 하느냐,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겠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크게 실망했을까? 그런데 남상옥 장로의 고백은 달랐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교회로 가야 하나 그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남상옥 장로는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정착할 교회를 다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CCC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 사랑의교회에도 가보고, 지구촌교회에도 가보고,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CCC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린 바로 그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일을 멈추고 온누리교회에 정착했다. 남상옥 장로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으로 재미있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학교, 하나님의가정 훈련학교, 일대일제자양육 등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들을 접한 게 가장 즐겁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

남상옥 장로의 시나브로 기부와 이웃사랑도 조금씩 성장했다. 그는 2013년부터 매년 예손 달력을 대량 구매해서 회사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손 달력 구매액이 무려 2억 원이 넘는다. 이뿐만 아니다. 2016년부터는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발달장애인 화가 양성을 위한 ‘(주)엘브리지아브노바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금식기도를 합니다. 2016년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확장하면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익 1%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그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남상옥 장로의 섬김과 기부를 일일이 늘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남상옥 장로가 기부를 일상처럼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쳤듯이 주는 것을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계속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상옥 장로의 따뜻한 마음에 온누리복지재단이 화답했다. 지난 1월 5일(목) 온누리복지재단이 남상옥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작은 이익으로 예손 화가들을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예손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작품에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손 달력을 선물 받은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도 그림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남상옥 장로의 기부와 섬김은 교회에만 국한

되지 않았다. 남 장로는 지난 1월 13일(금)부터 28일(토)까지 크리스천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우간다 의료봉사는 남상옥 장로가 2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봉사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한마음으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 힘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남상옥 장로가 새해를 맞아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전도하지 못해서 크게 아쉬웠습니다. 크게 아쉬웠던 만큼 올해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폭발훈련도 받을 예정입니다. 前 CCC 총재 김준곤 목사님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전도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전도에 힘을 보탤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하고 출중한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안개 성도들이 많은 게 정말 아쉽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꼭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받고,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예손 달력 하나씩 사서 책상에 뒀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맛있는 말씀 해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

이 말씀에 나오는 ‘계명성(morning star)’을 어떤 성경 초기 번역본에서는 ‘루시퍼(Lucifer; 타락한 천사, 사탄)’라고 번역해 놓았다. 라틴계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의 영향을 받은 영어번역본(New King James Version)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성경공부를 하다가 계명성이 사탄 루시퍼를 가리킨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정말 계명성이 루시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계명성’은 ‘할렐’로 표기되었는데, 동사 ‘할랄(비추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밝은 것,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 뉴킹제임스 번역성경은 계명성을 ‘빛을 가져오는 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초기 교부전통을 따라 무작정 루시퍼로 번역한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벌게이트와 뉴킹제임스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한 이유는 13절에 등

장하는 ‘북극 집회의 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북쪽의 높은 산에 신들의 모임이 있다는 전설과 가나안 신화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는 이시아 선지자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인정해서라기보다 문화적 배경을 수사학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칼뱅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계명성을 루시퍼로 이해하기보다 ‘교만한 바벨론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곧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서려 했던 바벨론 왕은 스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된다(15절)는 것과 그의 멸망으로 그의 후손과 그의 시체는 매장지도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19절)는 구절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자처하던 바벨론 왕이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 교만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망한 제국의 영광만을 추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권력, 세상의 영광과 힘은 새벽 별이 뜨는 아침이 되면 부질없이 사라지는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

기에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올라 잠시 누리는 새벽과 같은 빛난 영광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지게 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의 무대에 새벽처럼 등장한 바벨론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 권세가 천하를 호령하고 수많은 열왕과 나라를 두려움에 빠뜨렸고(16절), 전성기 시절 바벨론 왕은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나라와 도시들을 짓밟고 모든 것을 초토화했다(17절). 교만한 바벨론 왕을 이시아는 ‘계명성’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2인칭 서술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의지가 담긴 1인칭으로 전환해 선포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12절).

이시아 선지자는 그 권력과 욕망의 속성을 파헤치며 계속해서 말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14~15절).

끝없는 교만과 자신의 영광에 도취된 바벨론 왕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고 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18~19절).

이와 같은 문맥과 주석적 작업을 토대로 볼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로 그 의미를 축소하

고 제한시키기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바벨론 왕과 그 같은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할 때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월 6일~12일
사무엘상 8:10~12:15



어나려는 교만이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연합과 그 요구가 옳지 않음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묵상하자.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자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 왕의 제도 아래서는 백성이 군사로 징집되고, 왕을 위해 물질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평등한 형제로 사는 삶에서 인간 왕에게 땅과 양식을 바치고 왕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를 경고하심에도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워 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높으신 뜻 안에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묵상포인트 1: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 스스로 위기에서 벗

묵상포인트 2: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다.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신다. 인간 왕은 불완전하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초대 왕 사울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암시하자 그는 “자신이 가장 미약한 지파 사림”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전히 의심하는 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알려 준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 보파리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울이 암몬을 이기고 야베스를 구원한 후에야 모두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묵상포인트 3: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된다. 사무엘은 정치·군사 지도력을 사울에게 넘기고 자신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만 감당한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한 사무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다. 그가 당부하는 마지막 말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는 것이다. 사무엘의 고별 연설을 통해 일생 동안 모범이 된 그의 삶을 묵상하자.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은 사사직을 내려놓으며 고별 연설을 한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백성을 압제하거나 재판을 부정하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백성도 그의 말을 인정한다.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이심을 전한다. 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 달라고 했던 백성의 죄를 상기시키며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리라고 경고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왕정 제도의 폐단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크신 뜻 안에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일이 있는지 살피고, 불완전한 내 뜻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힘쓰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처음 모습은 매우 겸손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사무엘은 일평생 자타가 인정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였다.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정을 위해서!

올해 5년 차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때부터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지를 나눌 때면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원했고, 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결혼하고 곧 아이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나해 초부터 난임센터를 다니며 노력하고 있지만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등 안타까운 기사를 읽을 때면 저런 부모에게도 자녀를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저희의 생각이 교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 자녀의 참 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더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에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인생

“이단이 정말 많은데,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

이때 도마는 영적 무지 상태였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시며, 홀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내포한다.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시작점이요, 하나님은 마침표이다.

하늘의 질서로 정해진 이 시작과 마침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을 이단(異端) 혹은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른다. 이단은 다를 이(異)와 끝

단(端)의 한자어이며, 사이비는 영어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닮을 사(似), 같을 이(而), 아닐 비(非)의 한자어이다.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결국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끝이 다르고(이단), 시작이 다르다(사이비).”

어느 날, 홀로 카페에 앉아있었다. 옆 테이블에 중년 남성과 여학생이 마주보며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중년 남성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고,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여학생이 중년 남성에게 성경을 배우는 중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신천지였다는 것이다. 대화 도중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다행인 건가 싶었는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총회장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대언하는 이 땅의 유일한 사자입니다. 총회장님만이 계시자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색길을 걸어간다.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운다. 삶을 왜곡하고, 종착지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다. 사이비는 시작부터 다르다. 한자어의 뜻 풀이처럼 닮거나 같지도 않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전한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시대에 분명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의 목소리조차 긍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가르침에 대해 진리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권한다.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긍정하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긍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질문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체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마도 영적 무지 상태였다. 그랬기에 그는 질문했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었다. 도마의 영적 무지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명료한 진리를 이끌어 내는 통로가 되었다.

세상 다른 모든 것에 무지해도 괜찮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는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인생, 이 진리만 명확히 알고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에 담대한 평안이 가득할 줄 믿는다.



최종현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를 우선순위에!

양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강한 압박 등으로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결혼 생활과 부부의 삶에 분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위치에 서려고 한다. 그런데 간혹 격려와 지지의 위치를 넘어 자신도 모르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부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부모 자신들의 불만과 불평을 결혼한 자녀에게 쏟아 놓기도 한다. 부모의 불평과 불만에는 자녀의 배우자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 원망을 듣게 되면 당사자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를 성숙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불안과 염려, 불평과 불만을 고스란히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력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 극히 일부 부모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린 자녀에게 각종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그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갈등을 일으키는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자녀는 자신이 힘겨루기 중간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라고 여긴다. 힘겨루기는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

왜 자주 먼저 전화하지 않느냐?”, “네 남편(아내)은 할아버지 추모일도 모르느냐?”, “매주 집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네 남편(아내) 때문에 못 오는 건 아니냐” 등의 섭섭한 말들이 힘겨루기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남편 또는 아내는 부모가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추궁을 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결혼한 부부가 무의식적인 부모의 힘의 행사 혹은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부부는 가장 먼저 서로에게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혼했음에도 여전히 양가 부모의 큰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부모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남편(아내)을 통해서 밀려올 때도 있다. 이 상황에서 부부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 부부는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배우자의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우선 물어야 한다. 부부가 독립된 결정단위와 행동단위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우선순위를 부부에게 뒤야 한다.

둘째, 부부는 서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미숙한 사람은 힘겨루기 중간에서 미숙한 행동을 한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

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미숙한 대처를 한다. 물론 부부는 양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돌봄과 사랑을 양가 부모에게 돌려주는 게 화목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삶의 여정에서 양가 부모 혹은 자신들의 형제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무례하게 침범하는 빔 독촉 같은 방파제를 넘는 듯한 요구를 받기도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울타리를 넘어오기도 한다.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무례하게 요구하면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이 풍랑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풍랑 가운데에서 방파제의 역할을 각자가 먼저 해줘야 한다. 부모와 형제들의 문제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큰 파도로 넘쳐오는 것을 스스로 막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신이 들었던 말이나 받았던 감정을 어느 정도 걸러서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아니요”, “할 수 없어요”라고 힘써도 까칠한 역할을 맡아서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만일 부부의 갈등과 심각한 고민에 관해서 나눔을 하게 된다면 관계의 징검다리 두세 개 건너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게 좋다. 서로에게 받았던 실망이나 좌절 등을 시시콜콜하게 양가 부모에게 전달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쌓인다. 그렇게 쌓인 부정적

인 데이터는 중요한 순간 그대로 자신과 배우자가 돌려받게 된다. 당연히 좋은 말로 돌아오지 않는다. “네 남편(아내)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해!”라는 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인 데이터들은 관계의 힘겨루기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을 터놓을 누군가를 찾는다면 관계의 징검다리 두세 개 건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도 민망하지 않은 거리,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도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관계적 거리에 있는 사람과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안받는 게 좋다. 양가 부모나 형제들에게 부부의 어려움을 습관적으로 나눔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부정적인 데이터로 쌓이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서로를 관계의 우선순위에 뒤야 한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관계의 우선에 뒤야 한다.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느껴진다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결단력으로 결혼을 지켜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부산에서 보물찾기

남포역, 부산역, 동래역에서 만나는 ‘기독교 유적지’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신앙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대로만 되겠는가? 과연 여행이 짜놓은 일정대로만 펼쳐지는가?’라는 생각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여행이 순탄하고, 기대되며, 의미를 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형이나 취소, 당황 등의 불편함까지 신앙교육여행이라는 선물세트에 담긴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더욱 좋겠다. ‘당황하지 말자. 이것도 신앙교육여행’이라는 마음과 여유로움을 무기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해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2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지를 소개한다. 여전히 찬바람 부는 2월이지만 그나마 따뜻한 남쪽 지역을 골라 신앙교육여행 ‘부산편’을 시작한다. 주제는 ‘부산에서 보물찾기’다. 세 가지 보물을 부산 지하철역 이름으로 나눠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보물이 숨겨진 곳은 ‘남포역’이다. 부산은 선교사님들이 한양(서울)을 향해 가는 중에 잠깐 들른 곳이었다. 부산은 기착지였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첫 발자국을 남긴 곳임이 분

명하다. 그 덕에 부산에는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발을 딛다’라는 제목으로 세워진 표지석이 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부산 광복동 광복쉼터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초상화와 함께 표지석을 세웠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다. 부산 광복동 부근 자갈치시장, 강동시장, 부산국제영화제거리 등을 여행하다가 보물찾기를 하듯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찾은 사람이 많아져야 관리도 잘되고, 기독교 유적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다. 꼭 한 번 들렀으면 좋겠다. 우리의 발걸음이 미래에 남겨질 유산을 위한 분명한 수고가 된다.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자들이라면 ‘부산 근대역사관’을 필수코스로 함께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초등학교생을 위한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 보물이 숨겨진 곳은 ‘부산역’이다. 부산역 앞 초량은 근래에 관광지로 각광 받는 곳이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초량(이바구길)에도 우리가 찾는 보물이 있다. 이바구길을 걷다 보면 벽돌로 지어진 멋진 교회가 눈에 띄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으며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가 사역했던 ‘초량교회’(초량동 1005-1, 지금의 교회는 1967년 신축했다)다. 초량교회는 교회에 역사관을 가진 몇 안 되는 교회다. 역사관은 초량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약하고 관람할 수 있

다(051-465-0533).

부산역 근처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보물 같은 장소가 또 있다. ‘장기려 기념 더 나눔센터’(동구 영초윗길 48)다. 장기려 박사는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치유사역의 모델로 삼고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하고 진료했던 의사다. 한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했던 장기려 박사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기독교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을 설명해 놓은 글과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들과 글씨들을 자세히 보고 분명하게 몸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공간 구석구석을 느린 걸음으로 살펴볼 것을 권한다. 좋은 신앙인의 모델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참 신앙인,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장기려 박사의 삶은 보물 중의 보물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세 번째 보물을 찾으러 ‘동래역’으로 떠나보자. 우리나라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이 부산 동래역 부근에 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은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동래구 충렬대로 202번가길 13)’이다. 선교 초기 성경과 찬송가를 비롯해 잡지, 문서 등 교회 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기독교 관련 물품들도 소장하고 있다. 당시 기독교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옛 자료들이 오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

는 공간이다. 또 근현대지역사와 관련한 민속품들이 별도의 전시관에 마련되어 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한 개인(안영대 장로)이 평생 모은 자료들을 기증한 것으로 출발했고, 교회가 협력하고,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의 모습을 여럿하게 보여준다. 동래중앙교회 비전센터 3층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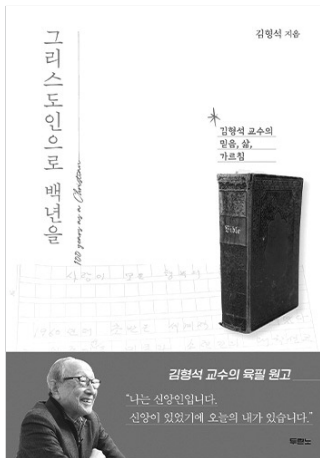
부산으로 신앙교육여행을 떠나기 전에 참고하면 좋은 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부산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가 부산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상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탁지일 교수의 부산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남포역에 세워진 선교사 표지석.

두란노 신간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백년을〉
김형석 저 | 두란노 | 18,000원

이 책을 소개하는 저자 김형석 교수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이 책에는 평생 그리스도인이자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 은혜의 기록과 신앙고백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교육자, 철학 교수, 문필가라고 부른다. 수필 문학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4세 된 김형석 교수의 고백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도 한 사람이 백년을 살기가 쉽지 않다. 그 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기는 더욱 어렵다.

김형석 교수는 백 년을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 김형석 교수는 신간 〈그리스도인으로 백년을〉에 그리스도인으로 백 년을 산다는 것의 의미와 정수를 담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생각들을 떠오르는 대로 기록해 두었던 글들이 이 책의 내용이다. 사상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한 내용도 아니다. 다만 사는 동안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나에게 는 신앙적 집필의 마지막 열매로 남게 된 셈이다.”

기독교 OTT ‘풍당’ 추천 콘텐츠

오직 복음 안에서!



‘맨 인 블랙’

이태후 목사가 섬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노스센트럴은 주민 절반 이상이 극빈자다.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소외된 동네다.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60%에 달할 정도다.

이태후 목사는 노스센트럴에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기도해주고, 거리를 청소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인다. 매년 여름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캠프를 한다. 이태후 목사는 노스센트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복음이라고 말한다.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차별이나 눈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7년 동안 한인 교회를 섬기던 이태후 목사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노스센트럴 주민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여 년째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 대신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고, 이웃들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하고 있다. 교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목사 이태후 목사의 삶이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맨 인 블랙’에 담겨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정아브라함, 정사라 선교사의 고백 그리고 기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난민이 1억 명을 넘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돕는 것은 크리스천과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그 중심에 있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의 주인공은 2011년부터 중동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정아브라함, 정사라 선교사다. 그동안 난민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지금 선교지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 편집자 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 10:2).

2011년 중동에는 봄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랍의 봄’이라는 이름이었지요. 당시 중동의 정국들이 흔들리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정착한 곳은 어느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시리아 난민촌이 최초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2~3번 이상 택시를 탔습니다. 그 지역은 ‘택시스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택시들이 많고 비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습니다. 거의 매일 두 번씩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충 계산 해봤더니 3~4년 동안 적어도 3천 명이 넘는 현지 택시운전사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화내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가 시리아 난민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난민촌은 허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유엔난민본부를 찾아가 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과 기타 교실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타와 한글을 가르쳐주고 나면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둘러메고 난민촌을 걷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차(tea)를 권했습니다. 달짝지근한 홍차나 진한 시리아 커피를 마시다 보면 한국 사람을 보려고 온 난민들로 텐트가 가득 찼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타를 연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 모두 귀기울여 듣고, 찬양이 끝나는 순간 모두 조용해집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깊게 우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목에서 뭐라고 말하지만, 대다수가 끝까지 저희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난민촌 사역은 현지 난민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난민 가정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고, 여러 난민 가정을 방문해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IS의 침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2014년 6월 초 시리아에 있던 수니파 무장세력들이 ‘IS’라는 이름으로 중동 F국 M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수니파 무장세력은 수도 근처까지 모든 도시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도 위협해져서 잠시 이웃 나라로 피신했었습니다.

약 한 달 후, 저희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는데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어마어마한 인파를 봤습니다. 끝도 없이 서 있는 차들과 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야지디 쿠르드인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수니파 무장세력이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쳐들어와 야지디 쿠르드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던 버스가 이미 국경 안으로 들어온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집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겨우 동네에서 도착했는데 그렇게 많은 동네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적막만 가득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피난한 상태였고, 수니파 무장세력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과 20km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지켜 줄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공항과 국경 관문이 모두 폐쇄된 상태였고,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와 이 나라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시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곳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도망갔지만, 무장세력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오른팔로 이곳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에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저희가 있는 곳에 침입했던 수니파 무장세력이 모두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처로 수니파 무장세력의 공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장세력들이 더는 침입하지 못했고, 수많은 난민이 우리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아브라함, 정사라 선교사가 난민촌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난민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곳이 안전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피난민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주위에 거대한 난민촌 5개가 세워졌습니다. 주변 마을에도 수많은 난민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새 거대한 난민촌이 되어서 세계 각국 수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난민들의 생존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저희는 직접 난민들을 찾아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좁은 마을 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한 아시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의사로 오해하고 다짜고짜 나를 데리고 어느 난민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아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었습니다. 그 아시아인은 또 다른 아픈 난민이 사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구호 활동보다 매주 기타를 어깨에 메고 난민들이 거주하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악취가 나고, 온갖 벌레들이 몰려다니는 통에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든 분들과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삶이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들

끓는 곳에서 잠시도 있기 힘들 텐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족과 이웃들이 죽는 끔찍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많은 NGO 단체가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난민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찬양, 복음 선포가 우리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 가정들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에서 최선을 다해 난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난민 가족들을 다시 찾아가 영화 ‘예수’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부르는 난민 가정들이 많아졌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계속 새로 세워진 난민촌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난민 아이들을 위해 ‘선한 목자 난민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영혼들을 잘 보살피서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먹일 양식을 잘 준비하고, 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아브라함, 정사라 선교사(중동F국)

2023 차세대 겨울사역 속으로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예꿈·꿈땅 겨울캠프

차세대 겨울사역이 한창이다. 지난 1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청양 송의 청소년수련원에서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Follow The Way’ 가 막을 랐다. 이번 패션집회는 수원, 부천, 대전, 강동 연합으로 진행했다. 차세대 학생 및 교사 550여 명이 참석했다.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Follow The Way’는 계속 이어진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가 2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양재 파워웨이브는 2월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전주대학교에서 패션집회를 개최한다. 최성민 목사, 이서진 목사, 노희태 목사, 서준형 선교사 등이 강의한다. 다른 캠퍼스는 일정에 따라 패션 집회를 진행한다.

서빙고, 양재, 도곡 예수님의꿈아



파워웨이브 연합(수원, 부천, 대전, 강동) 패션집회.

이 겨울 캠프도 막 오른다. 유치부 2월 12일(일)과 19일(일), 유년부 2월 11일(토)과 12일(일) ‘우리 몸으로, 풍당!’을 주제로 겨울캠프를 한다. 꿈이자라는땅 겨울캠프는 ‘창세기

대홍수’를 주제로 초등부 2월 18일(토)과 19일(일), 소년부 2월 25일(토)과 26일(일) 막 오른다. 나머지 캠퍼스도 일정에 따라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 홍하영 기자

연애특강 참가자 모집

건강한 연애를 돕는 ‘연애특강’ (바로수강) 세미나가 열린다. 연애특강 세미나에서는 연애 전문 코치가 실제적인 연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나만의 이상형을 찾고,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비결도 알려준다.

이번 연애특강 세미나에서는 김숙경 소장, 황규복 목사 부부가 ‘배우자 기도’, ‘성격별 연애’, ‘건강한 소통’, ‘썸’을 주제로 강의한다. 사랑과 연애를 꿈꾸며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바로수강 세미나는 회비 결제일로부터 30일 동안 두란노바이블 칼리지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 문의: 02-2078-3456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제이흠 입양 세미나 개최

2월 19일 오후 5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본부 제이흠사역팀(입양, 위탁 커뮤니티)에서 입양세미나를 2월 19일(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입양세미나에서는 박요한 목사(프렌즈교회 담임,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가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고백할 예정이다. 자녀를 입양한 가정, 자녀 입양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신앙을 위한 영점 조준!

2월 화요성령집회 ‘영점 조준’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영점 조준이 필요하다면 대학청년부 2월 화요성령집회 ‘영점 조준’에 참석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집회가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영점 조준’에서는 2월 7일 최성민 목사 ‘진리의 영점 조준’ (마 24:3~13), 14일 이서진 목사 ‘경건의 영점 조준’ (딤후 4:6~16), 21일 정한호 목사 ‘믿음의 영점 조준’ (민 9:15~23), 28일 최성민 목사 ‘회복의 영점 조준’ (사 61:1~3)을 주제로 설교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0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채널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

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차세대 주중 프로그램 참가자 및 교사 모집

꿈아이놀이터, 샤이닝키즈 3월 11일 개강

양재 차세대 주중 프로그램 ‘꿈아이놀이터’와 ‘샤이닝키즈’에서 참가자 및 교사를 모집한다.

‘꿈아이놀이터’는 영유아(18~40개월)가 부모와 함께 오감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샤이닝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QR코드 참고). 모집 기간은 2월 7일(화) 오후 1시부터 2월 9일(목) 오후 3시까지다. 등록비는 12만 원.

꿈아이놀이터에서는 교사를 모집한다. 소그룹과 대그룹 운영, 찬양,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모

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다.

‘샤이닝키즈’는 6~7세 미취학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말씀 암송학교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다.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꿈아이놀이터 010-9406-9129

샤이닝키즈 010-3291-9090



샤이닝키즈



꿈아이놀이터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 모집

총 6개 반, 2월 19일까지 신청

2023년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을 2월 19일(일)까지 모집한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인천 저녁반)이 개강한다. 주간반은 여성반, 저녁반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빙고와 양재 주간반 2월 28일(화), 저녁반 2월 25일(토), 수원과

인천 저녁반 3월 4일(토)부터 과정이 시작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주간반 010-4173-3234

서빙고 저녁반 010-9182-6804

양재 주간반 010-6427-5580

양재 저녁반 010-9019-4648

수원 저녁반 010-2583-7607

인천 저녁반 010-7334-9705

본부 02-3215-3625, 3220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열린다성경은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집트-요르단’ 편과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산토리니’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집트-요르단’ 편은 4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된다. ‘

출애굽 여정’을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이집트 역사와 페트라 왕국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리스-산토리니’ 편은 5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된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의 역사, 신학, 철학’을 주제로 인문학을 배운다.

문의: 010-4902-1022

1월 세례자

■양재	김관식 한미성	이지옥 나효정	정경모 이지연	임정연 961005
김하영 030729	김주완 210904	이혜윤 180407	최재하 210215	입교
하진양 730812	김효철 박소현	이지옥 나효정	최성수 윤지원	박신혜 881210
입교	문석현 220507	장연우 220407		조현아 010209
강신애 760719	문광민 박나현	장주원 윤나일	〈대학청년〉	
이혜진 801112	이제인 170327	장하울 190813	■SNS	
유아	이대제이아면	장홍준 양서진	문정은 930914	
김승원 190319	이형석 220417	정진후 220209	송윤혁 890924	

■ 남편의 발을 씻기며



/ 권인애 집사(속초중앙교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 있어서 당신의 발을 들여다보게 되 있어. 7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왼발을 잃고도 씩씩하게 견뎌준 당신에게 문득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네. 여보 참 고생 많이 했어.

여보의 발을 닦아주다 보니 당신이 큰 수술을 받던 7년 전 그날이 생각난다. 의사가 당신의 발을 보면서 “절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되 있어.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 얇은 커튼 한 장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당신이 생각나서 의사에게 “작게 말씀해주세요. 환자가 들으면 절망할 것 같아요. 제발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어. 그리고 밖에 나가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지.

여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올라왔던 그 시간도 생생히 기억나. 지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전화가 참 많이 왔었지. 당신의 마음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지. “수술 잘했어요. 그런데 한 발은 엿장수에게 팔아먹었습니다”라며 웃는 당신을 보며 정말 놀랐어.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

하고 멋져 보였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사실 식구들은 당신이 우울증에 빠지진 않을지 걱정을 했었거든. 그 어려운 시간을 당신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잘 견뎌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해.

여보, 요즘 의족이 참 잘 나왔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더라고. 내가 최고의 의족을 선물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마. 다리 한쪽이 불편하지만 열심히 생활해주는 당신이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워. 날 당신의 아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당신이 내 남편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남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의 수술한 다리를 마사지해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앞으로도 당신을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해.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서 눈물 나게 감사해.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 섬교회에서 온 편지



/ 서현수 목사(후광교회)

“후광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하의도 후광교회 서현수 목사입니다. 하의도는 목포에서 2시간 이상 배를 타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이 1,200여 명 정도입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후광교회는 1994년 모교회인 ‘하의대리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이곳은 모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서 마을마다 교회를 분립 개척할 정도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보행기와 지팡이를 의지해 교회에 나오는 나이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후광교회가 자립해서 지역사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미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후광교회 예배당은 20년 전 상태 그대로입니다. 벽돌과 블록, 나무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해 난방을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 성도님들이 하나둘 소천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궁핍합니다. 교회 보수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수를 위해 성도님들과 함께 건축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건축헌금을 시작한 게 아닌지 걱정되고, 나이 많은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과 작업하는 기능공 등 모든 비용이 육지와 비교해서 두 배 이상 들었습니다. 건축헌금을 모으는 시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부담이었습니다. 교회 건축비 1천만 원 중에서 어렵게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날에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떡국떡을 판매한 수익금(236만 원)을 후광교회 건축 비용에 보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농어촌선교팀의 후원에 힘입어 농사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산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생 목수와 농사 일하면서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 혼자 공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큰 공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부족한 공사대금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누리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간중



/ 조요섭 부원장

지난해 러시아에서 온 한 아이가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을 찾아왔다. 점심을 먹던 중에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남매도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감사하게도 교수, 선생님, 강사 출신의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 네 분이 지원하셨다. 자원봉사자들은 연변과기대 교수님 출신, 생물 선생님 출신, 영어학원 선생님 출신, 목사님 등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교회, 광교산울교회, 행복나눔교회, 수원온누리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 그분들 덕분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5주 동안 총 10회 기초 한국어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어 특강에 함께 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계신 서울의 한 선생님께서는 정말 많은 한국

그분들 덕분에

어 교육 자료를 보내주셨다. 이번 한국어 특강도 그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사용할 교재는 센터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손수 간식을 챙겨오시고, 수업 마치고 아이들이 점심을 거를까 봐 떡볶이도 사주시면서 아이들을 섬겨주셨다. 또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해보셨다. 그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며 소통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할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다. 이번 겨울방학 한국어 특강을 잘 마치고 올해는 더 많은 이주민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후원문의: 031-8077-9110

■ 순장학교 수료 간중



/ 이준완 순장(이촌공동체)

잃어버린 듯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 나태해진 신앙 태도로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온누리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과 큐티스쿨 등을 수료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던 세상 콘텐츠를 비워내고, 다시 조금씩 말씀을 담아냈다.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번 학기는 무슨 과목으로 신앙을 연명할까’라고 생각했다.

평소 관심 있던 과목을 듣기로 마음먹고 수강신청까지 했는데, 어느 날 순장님이 이번 학기에는 순장학교 과정을 수료할 생각 없다고 물으셨다. 순예배도 잘 나가지 않던 터라 당황했지만 ‘아무거나 들으면 어때’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순장학교 수강신청을 했다. 그 때만 해도 순장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여전히 순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순예배에 잘 빠지는 순장학교 학생’이라는 애매한 상황에

순장은 품는 사람

놓인 나를 발견하고 반성했다. 다시 순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순장학교 수료 조건인 순장 실습을 하면서 순예배를 준비하는 순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또 순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순장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했다. 이 모든 변화가 순장학교 과정을 수료하면서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선택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다. 순장학교 수료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순장은 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순에서 만나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순과 순원,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깨달았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내게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사역칼럼

생명과 환경은 신앙의 문제!

영종 차세대 1기 ‘40일의 고백’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얼마 전 인상적 인 뉴스가 눈에 띄었다. 극지방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30여 년 전부터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를 줄인

인간의 승리다.

최근 환경문제의 가장 큰 이슈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프레온가스를 줄이는 것과 또 다른 모양새다. 프레온가스를 줄이는 국제적 협의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냉매가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배출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기에 국제적인 합의가 힘든 것 같다. 그렇다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인류의 기후 위기 극복은 꽤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앙 없어도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민감하다. 뉴에이지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다.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낙태, 동성애, 사회적 성 등의 문제도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인본주의가 그 원인이다.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도도하게 밀려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

이 나서야 한다. 성도들이라면 교회와 성도가 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남용하고 오염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 된 자의 당연한 도리다.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에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창조를 묵상하고,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작은 실천들을 시도해보는 운동이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따라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 순으로 총 7가지 주제를 묵상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실천하면 된다. 실천과제는 실내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빼기, 자전거 타기 등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준비했다. 40일 동안 스스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서 잘 실천하면 된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실천 사항도 추가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을 하면서 온누리교회가 기후와 탄소 음식 문제를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다수 성도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을 잘 모른다.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크리스천들이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의 문제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



김지선 전도사
(영종온누리교회)

우리의 첫 만남은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이었다. 작은방 한편에 의자 10개를 놓고 차세대들을 기다렸다. 3명으로 시작한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에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의자를 빼고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의 과반은 교회에 처음 오거나 영종도로 이사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다. 온누리교회 다른 캠퍼스를 경험한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드렸다. 정말 작은 예수들이 모인 자리였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모두에게 생소한 시간이었다. 어느 차세대들에게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참여가 첫 경험이기도 했다.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에는 교사가 없다. 청소년은 이제 10여 명이 모였고, 그중에서 4명은 예쁨과 꿈땅 교사로 섬기고 있다. 나는 작은 불씨를 붙였다. 그들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완주 도전은 상상과 한계 이상의 동기가 필요했다. “에어팟”이면 한번 해볼만 하니?”라는 나의 한 마디가 차세대들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동기가 되었다.

그저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새벽기도회가 되지 않도록 설교에 대한 소감한 문장과 설교 노트를 작성했다. 2주차부터는 새벽기도회 이후 한 시간 정도 모여 설교 말씀으로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새벽 말씀을 기억했다. 성인도 힘들었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동안 우리

는 서로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 진짜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가 되었다.

커다란 간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첫 주에 하나님께 “부도님의 열심으로 출석이 이어지지 않고, 아이의 결단으로 출석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도님이 교회 문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 부도님 없이 스스로 새벽길을 걸어 나오는 차세대들이 있었다. 부도님이 태워주지 않으면 예배당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룹에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신앙까지 자랐다.

또 다른 친구들은 종교가 다른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교회 가는 것, 교회 물건이 집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환경에 있었다. 그 아이들은 2~3주에 한 번 핑계를 대고 현장예배에 나왔다. 형제가 새벽마다 서로를 깨워주고,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켜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했다. 방송으로 만나는 CGNTV, 간추린 설교가 기록된 온누리신문이 여전히 복음을 듣고 보기가 녹록하지 않은 자들에게 희망임을 보았다.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 1기가 앞으로 이어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함께할 친구들에게 기도의 모델로 준비되었다.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던 기적, 함께 토스트를 먹으며 말씀을 나눈 기억을 누리며 새해를 맞이했다. 40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새벽예배에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기도파티원’ (게임 등 무엇인가를 같이할 사람, 피후원자)을 모으고, 스스로 견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영종온누리교회 차세대 1기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 차세대들과 함께한 40일의 고백은 영종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신앙에세이

“이것이 너와 함께 하는 길이다!”



김현실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했다.

“엄마 도와주세요! 원소가 유아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며느리도 이미 원소에게 감염됐다. 아들은 이제 7개월 된 둘째까지 감염될까 봐 우리 집으로 피난

을 보내야 한다고 읊소했다. 그동안 바빠서 아들과 며느리를 잘 도와주지 못했기에 손자를 보겠다고 했다. 연휴도 끼어있었고, 사랑하는 손자와 마음껏 지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둘째 손자와 매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평안하게 자기를 바라며 손자를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기고 눕혔다. 그리고 나도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 그 순간 손자가 “꿈”하며 힘

을 주더니 대변을 보았다. 방금 깨끗하게 씻겨눕혔는데 바로 큰일을 볼 줄이야! 나는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몇 분이라도 쉬어 볼까하고 돌아누웠다. 그런데 아기 기저귀 틈으로 나는 향기 때문에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 그때 알았다.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것은 아기의 위생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손자를 다시 씻기는데 마음에 울림이 왔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야만 하셨다.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기시며 깨끗하게 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길은 죄와 그 더러움을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위한

일임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깨끗해짐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 확산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됐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얼룩지게 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 허덕이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 욕망의 끝은 허무라는 점이다. 다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죄로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죄로 물든 마음을 씻는 것은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피난 온 손자를 돌보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삼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업무: 인사(하임), 훈련행정
장소: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화~토
문의: 070-4464-8102

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일시: 매 주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분야: 피아노 반주자 1명
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1. 국내 근무: 해외사업 담당자(1명), 후원관리 담당자(1명), 재정/회계 담당자(1명)
2. 해외 파견: 세네갈 지부 지부장(1명), 르완다 지부 행정 및 회계 담당자(1명), 농업사업 담당자(1명)
3. 말리위 KOICA 프로젝트: 국내 행정 및 회계(1명), 말리위 파견 행정 및 회계(1명)
※ 청년 채용: 만 34세 미만(남자의 경우 군필자 2년 가산하여 36세)
문의: 정승일 대리(070-4402-5015)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미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감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아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플랫폼사업부 콘텐츠 매니저 1명,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천 032.322.9686	수원 031.895.6500	대전 042.825.3642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를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인천 032.437.9686	강동 02.475.9686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김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5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우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숙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시강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 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당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완 김영배 김오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웅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도옥환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전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진구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정희성 조동수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중현 최재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용근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수 송애란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최재윤 카와 무
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용산 김은하 김혜경

김진숙 김중영 김태주 박주봉
네트라 뉴이엔 ~~한백준~~ 마주마

샹아빠비 사가르 에릭마리스틀스
윌리엄 이민영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제인랑 차재미 최정현
허효경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여람 김가희 김도모 김동규

김반석 김만석 김사라 김영진
김예찬 김윤아 김의연 김종승

김주영 김정부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박성배 박성원
박세연 박 성 박예슬 박은혁

박성훈 박재미 박예슬 박은혁
박익태 안류택 방예린 박영진

박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재벽 신주용 심은섭

배애환 안류택 양현도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부 윤종연 윤혜진

이난단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승희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원숙

임정미 임도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영훈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성희
최은영 최혜정 최민정 최영희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원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현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환 권철준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남열 김성진 김성목 김성목

김성순 김승광 김수역 김수역

김용성 김승용 김용배 김원기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장욱 김태경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석호

박영태 박종현 박찬빈 박승용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운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중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신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진 양의준 윤영성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성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도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장남 이 철

이현열 이현하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창하 정광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원 정성풍

정영열 정희태 정규상 조성근

정우영 정희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은주

최진석 최정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성 한병진 한양희 한종대

한희숙 한공식 한성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택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목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관진성

급세종 김경도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현 김두진 김만순 김병세

김병현 김병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진호 김성규 김성진 김성원

김정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창열 김재일 김경민

김정원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성진 김형건 김형준

김형중 김하선 김하수 김호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주연 명영찬 문상찬

나성원 류기범 류기범 박국명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국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치원

박현환 박현규 박형민 박홍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배종진 백종욱 서범하 서광제

서병하 서성현 서광제 서정우

손기철 손정래 손태웅 송동섭

송중환 송호철 신동기 신우환

신민호 신 섭 신철원 신하철

신현숙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안상식 양 용

양준홍 양준경 양성우 양은주

오봉규 오성복 오승규 원종주

유성진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영 이미선

이민호 이병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소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아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슬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신호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정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경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장미진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전도사

강요안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바이블

성경 캐릭터 '비블로'와 함께 떠나는
365일 즐거운 성경 여행!



하루 20분, 자녀와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해보세요!



매일 **폰당**에
업로드됩니다!



성경에 기반한 폰당의 **인체과학 키즈 콘텐츠**,
동화책&스티커북 출간!

두란노서점(서빙고, 양재,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 * 도서판매수익금 전액은 폰당 키즈 콘텐츠 제작에 쓰입니다
- * 문의: 폰당 고객센터 02.792.0691